

<인싸를 죽여라> 1~3장 발제

발제자: 호랑(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제일: 2024년 7월9일(화)

들어가며

“주류 매체 전반에서 진정 희망찬 날들처럼 비쳤던 시절로부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이 시기를 인터넷문화와 하위문화의 관점에서 다루며,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젠더 정체성, 인종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의제가 분출하던 기간 동안 주류 매체들의 레이더망 바깥에서 치열하게 일워진 온라인 문화전쟁을 추적한다(9)”

1장 혐오 세력이 권력을 잡다: 리더 없는 디지털 혁명의 역설

2010년대 초반 사이버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 부활함. 아랍의봄, 월가 점령운동, 정치화된 해커운동 등. 그러나 열기는 빠르게 식고, 오늘날에는 ‘대안우파’가 인터넷 문화를 점령함. 익명성을 기반으로 인종차별주의, 여성혐오, 잔인한 이미지 등이 ‘장난스러운 밈’으로 소비. 영어권 이미지보드 웹사이트인 포찬(4chan) 등이 이러한 대안우파 인터넷 문화를 주도했음. 개구리 페페가 대표적¹.

초기엔 허무주의적이고 무엇이든 비꼬는 문화에서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이 결합되며 대안 우파가 형성되기 시작. 초기 사례 중 하나는 이용자 댓글을 검열해야 한다는 저널리스트 캐시 시에라(Kathy Sierra)에 대한 사이버불링. 해당 여성에 대한 거짓정보, 사이버불링, 신상털이, 이미지 합성 등. 이후 다른 유명페미니스트 작가들에게 대한 집단공격이 이어짐.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게이머게이트 사태. 페미니즘적 유튜브 영상제작을 한 게임 비평가(사카지언 Anita Sarkeesian), 게임제작자 조이 쿼 등에 대한 극심한 사이버불링 사태.“이 모든 일은 사카지언의 주장에 얼토당토 않은 소리며 성차별은 결코 ‘게임 커뮤니티’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사실(46)” 그러나 게이머게이트는 게임유저들, 반페미니즘, 온라인 극우인 남성 청년들을 결집히시키고 주류화하는 구심점이 되었음. 온라인에서의 불링을 넘어서 실제 총기난사 및 데이트폭력(여자친구 살인 후 해당행위를 인터넷에 게시)으로 이어짐.

“온라인 환경은 이견의 여지 없이 비주류의 사상과 운동이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대체로 진보적 성격을 띠었던 타생, 정치적으로 좌파에 동조하는 비평가들은

¹ “개구리 페페는 백수 친구들이랑 피자나 먹고 비디오게임을 즐기는 무해한 만화 캐릭터였지만 극우 성향의 천연들이 이 캐릭터의 이미지를 가지고 유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과격한 메세지로 물들인 것이 지금의 개구리 페페 밈이 되었다. (243)”

인터넷을 이른바 ‘역사의 종언’을 초월하는 새롭고 매혹적인 첨경으로 보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러한 리더 없는 형식이 그 어떤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일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극우주의의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58).”

2장 증오와 조롱을 합리화하는 법: 위반의 온라인 정치학

1960년대²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는 ‘위반’이 하나의 가치가 됨. 새로운 우익의 사람들은 그 연장선에서의 저항정신, 반문화와 위반을 추구했음. 저자는 대안우파가 기존의 우익이나 보수주의의 일부와 다른 지점을 이것으로 봄. 스와스티카(나치문양)를 퍼포먼스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도덕적 금기’를 깨는 것을 영웅시하는 문화가 탄생. 포천에서는 자살 사망자와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함.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우파들이 (좌파의) 위반을 비판했다면, 이제는 위반을 극우/대안우파의 도구로 활용한 것. (이후 위반에 대한 이론 논의 후략)

“독일 나치가 우익 반도덕주의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니체의 사상에 매료되었던 것처럼, 대안우파가 온라인 공론장에서 행하는 여성과 소수인정의 대상화에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위반의 감성이다”

3장 혐오로 뒤덮인 인터넷: 온라인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대안우파.

대안우파 청년집단인 알트라이트(Alt-right? Alt-Lite?)는 그들만의 인터넷 문화와 대안 미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음. 오바마 행정부 시기를 지나며, 주류 신문과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뉴미디어 플랫폼이 그 자리를 대체했음. 유튜버와 트위터의 유명 인사로 확장된 대안 온라인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음. 유튜버들은 주로 남초커뮤 스타일(찬 스타일)의 밈과 이미지 콘텐츠를 생산했고, 일부는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방송국을 설립. 그 중 하나인 캐나다 온라인 방송국(?) 레벨미디어의 언론가(?) 로렌 서던은 슬릿워크에 난입해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음. 그중 가장 거대한 스타로 떠오른 사람은 영국인 게이 논설가인 마일로 안드레아스 바그너. 유대인, 게이이면서 대안우파의 파시스트적 면모까지 긍정적으로 보도한 유튜버로, 미국과 영국의 대학을 순회하면서 정치적올바름과 서구자유주의, 페미니즘, 이슬람, 흑인 민권운동 등을 비판하는 <위험한 호모 투어>라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인기를 얻었음. 물론 이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주류로 떠오르자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이 전통적 미디어나 기득권 정치단체, 또는 기타 제도적인 지원이 전혀 없이 사실상 그들만의 온라인 독점적 대안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온라인 문화전쟁을 보건데 촘스키의 여론조작 모델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반헤게모니 이론까지를 망라하는 좌파 사상에 가장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진영은 우파인 것으로 보인다”

² 미국 및 유럽에서 신좌파운동, 베트남전 반대 운동, 히피 문화 등이 확산되었던 시기